국내
마감시황

2025. 11. 25.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기관 매도에 혼조 마감

기관 투자자, 5거래일 만에 KOSPI 순매도로 전환
구글의 TPU 외부 판매 소식에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 업종 강세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3,857.78pt (+0.30%)	856.03pt (-0.05%)	544.62pt (+0.70%)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71.90 원 (-4.6 원)	3.2560% (-3.3bp)	6,715.50pt (-0.09%)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273 억	-725 억	-707 억
외국인	+1,092 억	+991 억	+17 억
기관	-792 억	-52 억	+775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전일 미국 연준 월러 이사의 12월 금리 인하 지지 발언에 금리 인하 확률은 80%까지 상승했습니다. 또한, 구글 제미나이 3.0의 호평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가량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 훈풍의 영향으로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기관 투자자의 순매도에 상승 폭을 축소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0.30% 올랐고, 코스닥은 0.05% 내렸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13.1조원, KOSDAQ은 7.5조원을 기록했습니다.
- 외국인은 KOSPI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들은 KOSPI에서 전기/전자와 전기/가스 업종을 매수했고, 금융과 제약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KOSPI를 순매도했습니다. 이들은 전기/전자와 전기/가스 업종을 매수했고, IT 서비스와 제약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구글이 TPU를 외부 고객사에게 판매하겠다고 언급하자 반도체와 PCB 기판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튀르키예와 원전 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원전주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일 갈등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자 레저·호텔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바이오와 조선주가 내렸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이수페타시스(+12.47%), 리노공업(11.88%), 한국전력(+6.85%), (5.25%)이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9.06%), 롯데관광개발(-5.69%), 한화오션(-4.88%)이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